

크루즈로 떠나는 늦가을 제주



늦가을 제주를 온통 익세 물결이다. 한라산과 오름, 들판 곳곳은 사람 키 만큼의 은빛 익세가 바람에 휘날리며 가을 정취를 더한다. 익세 명소로 유명한 산굼부리에 익세밭이 펼쳐져 있다.

## 바람따라 밀려오는 은빛 파도에 몸도 마음도 풍덩

목포항서 4시간 30분 달려 제주항 도착  
북제주 산굼부리 수백㎡ 익세밭 장관  
성산 일출랜드 쪽빛 염색체험 즐기고  
외줄 레포츠 '집라인' 스트레스 싸~악



씨스타크루즈호의 선내 식당. 음식이 일반식당 못지 않다.



목포~제주를 오가는 2만4000t급 씨스타크루즈호는 국내 최대 여객선이다.

요즘 제주를 익세 천국이다. 한라산을 둘러싼 산 등성이와 오름, 들판마다 익세밭이 장관이다. 여름 성수기가 분명하긴 하지만 이제 제주를 사계절 모두 특징있는 관광지 가 됐다. 이중 늦가을 제주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는 익세밭은 가히 절경이다. 과거 제주 여행은 불거리가 대부분이었다면 요즘은 '체험형 관광'이 대세다. 감귤따기 체험부터, 각종 레포츠 시설이 즐비하다. 무더운 여름에야 장시간의 활동이 쉽지 않지만 가을 햇살을 받으며 즐기는 이 체험 관광은 훨씬 쾌적하다.

제주를 가는 교통편으로는 배를 선택했다. 세월호 참사 이후 배를 이용한 제주 관광객 수가 크게 줄었지만, 배는 여전히 제주와 육지를 잇는 중요한 관광수단이다. 항공편에 비해 시간이 걸리더라도 느긋한 여행을 꿈꾼다면 배가 제격이다.

목포에서 오전 9시에 출발하는 '씨스타크루즈호'에 탑승했다. 2만4000t급의 이 배는 국내 최대 규모의 크루즈형 배로 목포항에서 출발 4시간30분을 달려 제주항을 잇는다. 지난 2012년 카웨이 부문 최우수 선박으로도 선정된 이 배는 편의점과 유명 제과 프랜차이즈, 제주항에서 상품을 인도받을 수 있는 면세점, 식당, 노래방 등을 갖췄다.

객실은 1인실부터 가족을 위한 스위트룸까지 종류가 다양하다. 테라스에서 시원한 바닷바람을 맞으며 맥주를 즐기는 일은 배가 가진 여행의 매력이다. 200석 가까이 되는 식당의 음식도 일반식당 못지 않은 품질을 자랑한다. 크루즈 형식으로 규모가 큰 이 배는 배 밑머리에 민감한 사람도 큰 불편 없이 탑승할 수 있다. 가족여행에 안심맞춤인 셈.

선사인 씨월드고속훼리는 최근 국내 최초로 근거리 무선 통신 기술(NFC)을 활용한 선박 내 스마트 안전정보 시스템을 마련했다. 스마트폰을 이용해 선내 구조를 누구나 들여다 볼 수 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장치를 강화한 것이다.

제주항에 도착한 배가 1000여명이 넘는 승객을 쏟아내자, 미리 도착한 관광버스타나 렌터카를 타고 관광지로 향했다. 가장 먼저 익세밭이 장관인 산굼부리를 찾았다. 산굼부리는 북제주군 조천읍 교래리에 있는데, 1118번, 1112번 지

방도로의 교차점으로, 동서 850m, 남북 730m의 평범한 오름이다. 사람 키 만큼의 익세가 찬바람에 춤을 추며 '은빛 파도'를 연출한다.

익세의 정취에 흠뻑 취한 뒤 본격적인 체험형 관광에 나섰다. 특히 가족이 즐길 수 있는 여행에 초점을 맞췄다. 서귀포시 성산읍에 있는 일출랜드는 다양한 정원수도 유명하지만 염색체험이 대표적인 즐길거리다. 제주에서 직접 재배한 쪽을 발효시켜 만든 쪽물에 손수건이나 스카프를 직접 염색한 뒤 이를 가져갈 수 있는데, 제주의 가을 하늘 만큼이나 푸른 쪽빛이 손수건에 물드는 모습이 이채롭다. 간단한 설명을 듣고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데다 '홀치기 가뭄'을 이용해 나만의 작품을 만들 수 있다.

감귤 따기도 자녀에게 최고의 선물이 될 수 있다. 직접 가위를 들고 감귤의 맛을 보며 수확하다 보면 순식간에 시간이 흘러간다. 배가 부를 만큼 감귤을 먹어도 맘이 좋은 주인공 '저쪽 나무도 가 보라'고 손짓한다.

체험거리의 레포츠 활동도 빼놓을 수 없다. TV 예능프로그램에 나와 유명해진 집라인은 출발지와 도착지를 철와이어로 연결하고 탑승자가 도르래를 와이어에 건 뒤 외줄을 타고 건너는 레포츠다. 100여m의 거리를 순식간에 가기 때문에 속도와 스릴이 짜릿하다. 와이어에서 '지입~' 소리가 난다 해서 집라인으로 불리는데, 제주에서는 다회연(제주시 조천읍 선흘리)에서 즐길 수 있다. 다회연 녹차밭 위를 질주하는 집라인은 총길이 620m의 4개 코스를 사각형으로 돈다. 총 50여분이 소요된다.

갑자기 솟아오르는 작은 정사를 산탄총으로 쏘는 클레이 사격도 가을 레포츠로는 제격이다. 긴장감을 가지고 허공을 바라보면 빨간 점시가 수궁쳐 오르는데 총알이 점시를 산산조각내면 스트레스도 훌훌 날아간다. 서귀포시 상예동 에 있다.

씨스타크루즈호의 제주 출발은 오후 5시다. 각자의 여행을 즐긴 뒤 제주항에서 배에 오르면 된다. 해가 짧은 요즘엔 순식간에 햇빛 가우는데, 목포를 향하는 배 안에서 추자도와 진도 등 멋진 인근 섬의 야경을 즐기는 것도 소소한 재미다. /글·사진=임동률기자exian@kwangju.co.kr

### 제주도관광협회 늦가을~겨울 관광상품

감귤체험 농장, 따고 맛보고 가져 가세요

한라산 스키·눈썰매 타고 전통문화 체험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는 늦가을과 겨울을 잇는 관광상품을 내놓았다.

여행자들이 직접 감귤을 따서 맛볼 수 있는 감귤 수확체험농장은 그중 하나. 제주관광협회는 지난 1일부터 제주시와 서귀포시 2곳의 감귤체험 농장을 운영중이다. 체험 농장 규모는 제주시 애월읍의 함목유적지 내 3848㎡와 서귀포 중문관광단지 옆 색달동 4902㎡다. 가까운 곳을 선택해 언제든 갈 수 있다.

참가자들은 도내 여행사에서 판매하는 관광상품을 구입할 때 무료로 제공하는 체험권으로 체험농장 300여그루에 달린 감귤을 따서 맛볼 수 있다. 먹다가 남은 감귤은 1인당 1kg들이 비닐봉지에 담아 가져가도 된다. 감귤을 따는 데 필요한 가위는 농장에서 빌려준다. 무료 체험권이 없는 관광객은 농장에 4000원의 성금을 내면 체험을 할 수 있다. 모금된 성금은 전액 사랑나눔봉사단에 기부된다. 체험농장은 다음달 중 감귤이 모두 수확돼 없어질 때까지 운영된다.

한라산에서 치러지는 겨울 이벤트도 준비된다. 스키와 눈썰매 체험 등 동계스포츠는 물론 전통문화체험존이 운영돼 겨울 등산객에게 색다른 재미를 제공한다.

이외에도 관광객들은 제주관광협회가 지원하는 '하이제주' 할인쿠폰을 이용하면 최대 50%의 관광지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도관광협회 국내마케팅팀(064-741-8775)으로 문의하면 된다. /임동률기자exian@kwangju.co.kr

1·2층 이태리가구

3층 통원목가구

4층 모던가구

**이태리가구  
혼수가구  
특가전**

SINCE 1990

[www.hong79.com](http://www.hong79.com)

광주 동구 장동 58-15

☎ 1899-0240